

광주시 산하 공기업·출연 기관장 책임도 전문성도 없다

연봉은 역대...4곳은 성과금도 받아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 중 상당수가 고위공무원·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들 기관장들은 경영지표와는 상관 없이 최고 1억14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장은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영성과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성과금까지 받고 있어 조차통폐합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3·12면>

15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22명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중 전 광주시 고위공직자가 5명, 정치인이 2명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기업·금융인 6명(27.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언론인 출신은 3명이었다. 기업·금융인 중에서도 자신의 경력과는 상관 없는 직책을 맡고 있는 곳도 있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기업이

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이 경영실적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용되는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공모절차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들 기관장들은 경영지표와는 상관 없이 최고 1억14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장은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영성과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성과금까지 받고 있어 조차통폐합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 공기업 4곳·출자기관 3곳·출연기관 15곳 중 8곳 등 15곳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7765만원에 달했다. 이는 순수연봉으로,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환경시설공단·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 기관장은 성과금으로 연봉 이외에 1200만~1600만원까지 받고 있다. 연봉이 가장 적은 곳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광역정보센터로 4800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곳은 수완에너지로 1억1400만원이었다.

공기업 4곳과 출자기관 3곳의 평균 연봉은 각각 7725만원, 8316만원이었는데, 8곳의 출연기관의 기관장은 1년에 7579만원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었다. 특히 3년 연속 적자인 테크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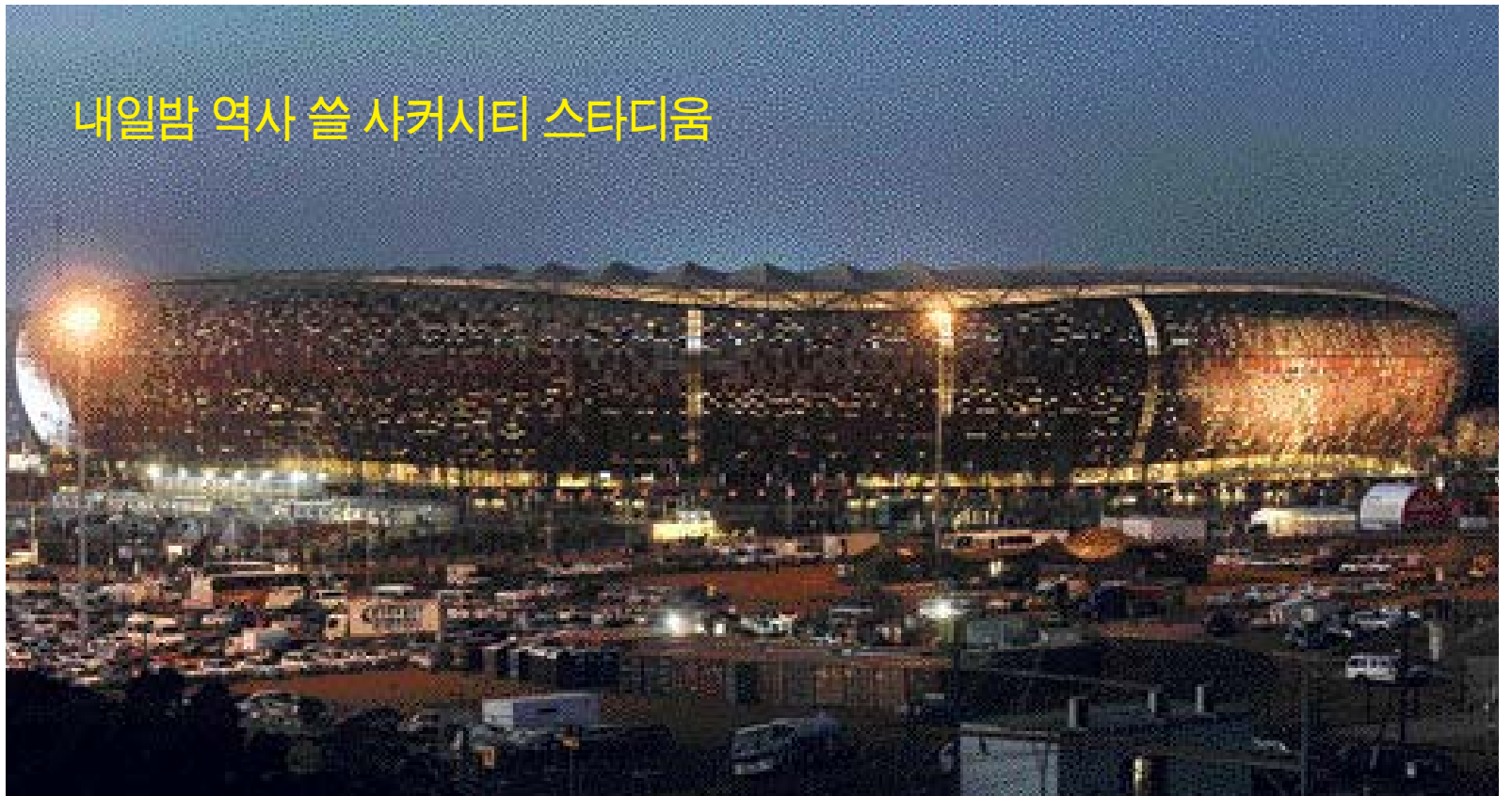
파크와 신용보증재단의 기관장 연봉은 각각 9500만원과 9000만원으로, 기관 연봉을 공개한 15곳 중 상위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기록했다. 광주발전연구원 원장은 9338만2000원으로 세 번째, 한국 CES와 DJ센터도 8750만원과 8300만원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1444만원(도시철도공사)에서 3600만원(테크노파크)까지 다양했으며, 연봉·성과금·업무추진비를 모두 합칠 경우 일부 기관장은 연간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기관장은 적자 등 전년도 경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자체적으로 연봉을 삭감하고 있으나 그 폭은 10% 내외에 불과했다.

민선 5기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사업 내용이 부실하며 자립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조직진단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7일 밤 남아공월드컵 B조에선 2차전인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열릴 예정인 해발 1753m의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 /연합뉴스

‘1753 고지’서 아르헨 깬다

태극전사 요하네스버그 입성...“고지대 적응 이미 끝났다”

관련기사 3·7·18·19면



“고지대 적응 이미 끝났다. 후회없는 한판승부를 펼치겠다”

17일 오후 8시 30분 (이하 한국시간) 2010 남아공월드컵 B조에선 아르헨티나와의 2차전을 앞둔 한국대표팀이 16일 경기 장소인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경기장은 해발 1753m에 자리잡은 사커시티 스타디움.

태극전사들은 아르헨티나전에 대비해 체력단련과 고지대 적응 훈련을 실시해 환경에 따른 전략적 요인을 최소화했다.

허정무 감독은 “아르헨티나는 첫 경기를 고지대에서 해서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체력은 놀랄 만큼 좋다. 볼 빠르기, 크로

스 때 골키퍼에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겠지만 잘 적응해 좋은 승부를 펼치겠다”며 변수로 떠오른 고지대 환경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꾸준히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해왔던 만큼 태극전사들의 강한 체력을 믿는 삼아 고지대의 약조건을 점면 돌파하겠다는 게 허정무 감독의 구상이다.

한국은 해발 고도가 0m의 저지대인 포트엘리자베스에서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같은 날 요하네스버그의 엘리스파르케에서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1-0 진압승을 거뒀다. 아르헨티나가 이미 같은 요하네스버그에서 경기했기 때문에 고지대 환경에 먼저 적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서 결코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 지대가 높으면 산소가 부족해 쉽게

피로해지고 체력도 급격하게 떨어진 다.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와 경기하면 선수들의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체내에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해발 1200m의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에서 열흘여 탐험질을 했고 지난 5일 남아공 입성한 후에도 요하네스버그와 큰 차이가 없는 베이스캠프 루스텐버그(해발 1233m)에서 나올 정도 훈련했다.

또 한국에서 공수한 고지대 적응용 산소마스크를 쓰고 산소량을 줄여 호흡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고지대 적응을 마쳤다.

더욱 다행인 것은 선수들이 레이몬드 베르하이엔 피지컬코치의 프로그램에 따라 강도 높은 체력훈련을 했다는 점이다. 허정무 감독은 “우리 선수들의 체력이 놀랄 만큼 좋아졌고 잘 적응하고 있다. 또 곤란 속에서도 뛰어난 역량과 놀라운 힘을 보여줬다”며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고지대

에 먼저 훈련한 아르헨티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대표팀 ‘캡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체력 테스트와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좋은 변화가 있었다. 선수들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지대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다”고 전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오늘밤의 월드컵

온두라스 H 칠레
<16일 20:30>

스페인 H 스위스
<16일 23:00>

남아공 A 우루과이
<17일 03:30>

스코어 보드

네덜란드 2 E 0 덴마크
일본 1 E 0 카메룬
이탈리아 1 F 1 파라과이

“정무직 인사, 단체장과 진퇴 함께해야”

강운태 당선자, 방만 산하기관 통폐합 추진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광주시 본청을 비롯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 양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관 등 산하기관 기관장 등 정무직 인사들이 현 광주시장과 진퇴를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취임 후 대규모 인사 해산을 예고했다.

15일 민선 5기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강 당선자가 최근 일부 인수위원들과의 회의에서 정무직 인사들은 시장과 진퇴를 함께하는 것이 조직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며, 이는 정치적·도

의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강 당선자가 특정 인사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정무직

인사의 범위에는 방관해 광주시장과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한 인사들이 아니겠느냐”고 예들려 표현했다.

강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인사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취임 후 광주시 및 산하기관의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강 당선자는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부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국장 등 고위공무원 가운데 잘못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조직 개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 17회 무등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2010. 6. 14(월)-5. 21(월) 무등경기장 야구장

전국시·도 대표 32개팀 출전

- 주최: 광주광역시야구협회
- 주관: 광주광역시야구협회
- 주최: 대한야구협회, 광주광역시야구협회, 광주광역시야구협회, 광주광역시야구협회
- 협찬: 광주광역시야구협회, 광주광역시야구협회

문의: 062-260-1114